

# ‘국내외 최근가전시장 동향’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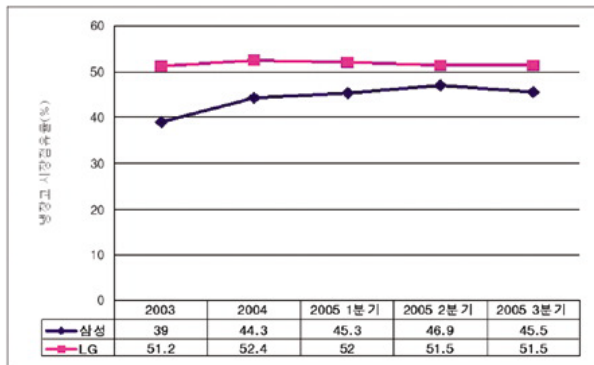
출처 : 전자정보센터

## VII. 국내 백색가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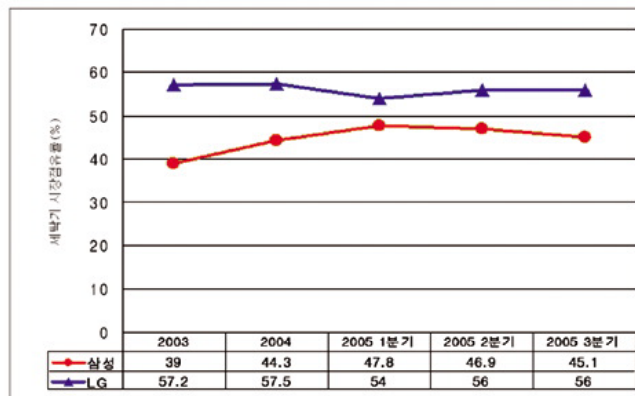
### 1. 국내 백색가전 시장점유율 현황

국내 백색가전 시장의 제품별, 기업별 점유율 조사한 결과, 3대 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부문은 LG 전자, 삼성전자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냉장고, 세탁기 국내 시장점유율



자료 : 금융감독원, 각사 사업보고서(분기별, 반기별)



자료 : 금융감독원, 각사 사업보고서(분기별, 반기별)

전체 냉장고 부문에서는 LG전자가 50%가 넘는 시장점유율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2005년 3분기 현재 51.5%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양문형 냉장고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달성하면서, LG전자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혀나가고 있다. 또한 세탁기 부문에서도 트롬을 출시한 LG전자가 강세를 보였다. 55%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2005년 2,3분기 모두 5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에어컨 부문에서는 국내 공식집계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최초로 에어컨 사업을 시작한 LG전자가 세계 판매량 1위를 5년 연속 차지하면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LG전자는 지난 2004년 1,200만대를 판매하며 19.6%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2010년 에어컨 매출액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에어컨 생산기지의 확대, 지속적인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외 시장에서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 에어컨 시장의 점유율은 2003년 40.2%, 2004년 41.1%, 2005년 9월 42.9%를 기록하며 LG전자와 함께 나란히 에어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삼성전자의 국내 에어컨 시장점유율 현황

	2003	2004	2005 1분기	2005 2분기	2005 3분기
국내 에어컨 시장점유율	40.2%	41.1%	41.3%	41.9%	42.9%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분기별, 반기별)

## 2. 세계 백색가전 시장 향후 전망

일본전기공업회(JEMA)의 '백색가전 5품목(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백색가전시장은 오는 2008년 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보고서는 향후 3년간 냉장고는 연평균 성장률 3.4%로 2008년까지 약 8200만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이며, 세탁기는 4.2%의 성장률을 보이며 약 7700만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별 수요상황을 보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대체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브릭스(BRICs) 4개국의 신흥시장에서의 신규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계 주요 가전업체들의 시장 공략이 더 거세지면서 특히, 세계 3대 가전업체 중의 하나인 중국의 하이얼이 한국시장을 글로벌 발전전력의 교두보로 인식하면서 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본사의 디자인, R&D, 마케팅 분야의 고급인력을 국내에 추가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업체들에게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업체들의 경우 선진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흥시장에서의 현지화전략에 따른 성공과 저가제품 대신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2006년부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기로 선언한 이상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 가치향상에 더욱 주력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IT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컨버전스 백색가전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